
 <p>교육부</p>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10. 18.(월) 배포</p>	
<p>보도일</p>	<p>2021. 10. 19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0. 19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 이후 보도 가능</p>	
<p>담당과</p>	<p>대입정책과</p>	<p>담당자</p> <p>과 장 조훈희 (☎ 044-203-6368) 서기관 신민규 (☎ 044-203-6367) 교육연구사 김도균 (☎ 044-203-6366)</p>

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

◆ 수능 당일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고,
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시행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대학수학능력시험(이하 ‘수능’)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「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」을 10월 19일(화) 국무회의에서 보고·발표하였다.
-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(목) 8시 40분부터 17시 45분(일반수험생 기준)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백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, 응시자는 전년보다 16,387명 증가한 509,821명이다.
 - ※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, 시험실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완료
- 관련 부·처·청, 시·도교육청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「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」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◆ **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**

- 우선 수험생의 **코로나19**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.

- 10월 19일(화) 현재,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,255개 지정하였으며, 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2,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.
-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을 112개소 (676실)를 마련하였으며,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33개소 지정하였다.

< 수능 시험장 마련 현황(10.12 기준) >

일반시험장 1,255개소			별도시험장 112개소			병원/생활치료센터 33개소	
일반 시험실	별도 시험실	계	일반 시험실	별도 시험실	계	병원	생활 치료센터
23,325실	2,895실	26,220실	464실	212실	676실 (2,947명 응시 가능)	31개소 (198병상)	2개소 (12병상)

※ 지난 2021학년도에는 확진자 41명, 자가격리자 456명이 수능 응시

-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이 해당되는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, 수능 3주 전부터는 수험생에 대한 상황관리를 실시한다.
 - 수험생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, 보건소는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.
 -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/생활치료 센터에 입소하게 되며, 격리 수험생은 자가 격리를 실시하다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.
 -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므로, 수험생은 확진 및 격리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.
-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(11.4.~11.17.)을 운영한다.
 -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320여 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 실시한다.

- 아울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, 게임제공업소·노래연습장·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.
- 수능 1주 전부터는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(11.11.~11.18.)한다.
 - 고교가 아닌 시험장 학교는 11월 15일(월)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며, 각 시·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(PCR)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,
 - 수능 전날인 11월 17일(수)에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유전자 증폭(PCR)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.
 -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(PCR) 검사 시 수험생 여부를 밝힘으로써,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고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- 수능 당일인 11월 18일(목)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며,
 - 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에 대한 사후소독, 응시자 및 관리·감독 인력에 대한 점검(모니터링)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◆ 교통 소통 원활화

- 시험 당일 시·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‘오전 9시’에서 ‘오전 10시 이후’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.

-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(06:00~08:10)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.
- 전철·지하철·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(07:00~09:00)에서 4시간(06:00~10:00)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.
 -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내버스·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증차 운행하며, 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지하철역·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한다.
 -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로에 배치하여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.
-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.
 -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, 자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하여 걸어가야 한다.

◆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

-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(13:10~13:35, 25분 간)을 통제시간으로 설정, 항공기가 이·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.
 - 아울러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·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자제하며, 야외 행사장·공사장·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.

◆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

-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(www.kma.go.kr, 11.12.~11.19.)한다.

-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·도별로 도서·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, 강우·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.
-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·도교육청에서는 10월 18일(월)부터 11월 5일(금)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- 아울러 교육부는 시험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점검(모니터링)을 실시하고,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.

◆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

-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·보관·회수를 위해 경찰청, 시·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.
-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, 문답지 인수·운송·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비상체제를 유지한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교육부는 관계부처, 시·도교육청,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백신접종, 수험생 유형별 응시환경 구축, 수험생 상황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강조하였으며,
- “수험생이 수능과 수능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험생 본인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며,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